

## 국경을 뛰어넘어 장애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다



어느덧 찬바람에 옷깃이 여미어진다. 아침·저녁 기온 차에 머물러는 필수품이 되었고, 점점 짧아지는 낮 길이는 마음마저 조급하게 만든다. 주변의 산들은 울긋불긋 아름다운 옷을 입고 높게만 보이는 하늘은 푸르지만, 자꾸 마음이 쓸쓸해지는 건 가을의 어쩔 수 없는 복병이 아닐까. 가을이 무르익은 10월의 중턱,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국내를 넘어 세계 인류의 마음을 따스하게 보듬을 행사를 진행했다. 제2회 세계장애여성대회에 참여하여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건강체험터를 운영한 것인데, 그 따뜻한 현장을 들여다보자.



### 추운 청계광장을 훈훈하게 녹인 건강체험터

제2회 세계장애여성대회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장애와 차별을 넘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장애여성과 정책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최대규모의 장애여성대회로, 세종문화회관과 청계광장,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청계광장에서 건강체험터를 운영하였다.

세계 각국의 장애여성과 행사 참가자, 진행요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여성의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혈압, 폐 기능검사 등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스트레스검사를 통해 장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극복,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상담 시간도 마련하였다.

이날 체험터에 참여한 한 장애여성은 "평소 내 건강문제는 장애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해볼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건강관리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줘서 고맙다."라고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건강체험터를 운영하는 진행요원들은 세계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건강 알리기에 앞장섰으며, 건강체험의 기회를 갖은 장애여성도 적극적인 참여로 자신의 건강을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열정적이기에 청계광장은 추운 날씨에도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 장애여성의 건강 지킴이로 우뚝!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장애여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9월 5일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허혜숙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중앙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장애인단체로는 최초로 여성가족부에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여성 당사자 단체로서, 이번 제2회 세계장애여성대회를 주관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의 시도 협회와 30만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은 "장애는 결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세계 각국의 많은 장애여성이 아름다운 여성, 자신감 있는 여성, 건강한 여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의 인류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장애여성들이 건강하게, 당당하게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나누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더욱 아름다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본다. MEDICHECK